

1990 11

가정예배 안내서

#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장애자를 위한 자선 바자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 고린도전서

---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서신의 하나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인데 비해 본서는 실제적인 서신이다. 특히 본서에는 당시 초대 교회의 생활 모습과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초대교회의 내면 생활 및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부딪힌 영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본서는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과 신앙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와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그러나 바울이 A.D. 51년 가을, 고린도 지역을 떠나자 그 교회는 고린도 시의 타락한 분위기의 영향과 그들의 미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워 분쟁, 음행, 소송사건, 혼인문제, 성만찬과 은혜의 남용 등의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리 정연하게 답변하고 있다.

### 11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2.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영력과 건강
3. 교회학교가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4. 교구확장과 교인배가
5. 사랑의 집 건축
6. 충현 복지마을과 세계선교원 건립
7. 91년에 임직할 직분자의 성령충만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1: 8)

**하나님의 교회** 로마서에 이어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읽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그것이 교회에 보내어진 내용인고로 교회론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미증유의 폭발적 부흥을 이룩했다고 부러움과 찬사를 받으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오늘의 교회는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 빛은 바래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교회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겨자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어제보다는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을 보시며 그 교회를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거룩하여진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건히 모시는 거룩성은 교회의 큰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은총의 소명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또 그 교회는 각처에서 한 주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보편성을 가졌습니다. 또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고백이 표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과 모든 은사가 넉넉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흠없이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교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 \*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여겨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경시하는 실제적, 혹은 교리적 경향은 엄히 경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사모되어야 할 주의 몸입니다.

기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내일부터 열리는 동구권 제도자 세미나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1 : 13)

**오직 복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자량이 추호라도 자신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본의가 아니더라도 더 철저한 주의가 부족하여 교회는 크고 작은 분열의 쓰라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문에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통하여 개종한 신자들인 바울파,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적인 아볼로를 따르는 신자들인 아볼로파,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모인 게바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중시하는 신자들인 그리스도파의 네분파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파는 긍정적인 소그룹이 아니며,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편당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철저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흥하여지도록 자기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조짐이 나타날때 교회의 일꾼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믿음의正道(正道)로 잘 회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편당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교회의 편당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분파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분열됨은 그를 떠나가는 일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누인 자들을 통한 예배는 열납될 수 없습니다. 예배 전에 화목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염려하여 세례주는 일까지 삼갔습니다.

- \* \* 바울은 주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되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속히 회복케 하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구권 지도자 세미나에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1 : 31)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타납니다. 유대적 표적주의와 헬라적 지성주의가 그것입니다. 제시되는 복음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고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전의 이적과 감각적인 체현을 고집하는 것은 전자에 속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경우가 후자에 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받기를 방해합니다. 표적주의자는 참과 거짓의 여부보다 배타적 의심의 눈초리를 앞세우고 억지로 이적과 효능을 요구합니다. 지성주의자는 기존의 이성적 테두리에 적용될 수 있는 것만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의 가능성도 모두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다만 참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함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 사도의 논지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계시는 인간 지혜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알려질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곧 계시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는 철학자가 천만 년 연구하고 사색해도 얻을 수 없는 계시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전도의 미련한 것'(21절)으로 전파될 수 밖에 없습니다.

\* \* 오늘도 전도를 받을 때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주의나 지혜를 찾는 헬라주의로 쏠리며 편견에 치우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표적과 지혜를 초월하는 신앙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유일한 방도인 전도에 전폭 헌신케 하옵소서. 총현교회의 모든 교역자님들과 협동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2:4)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박은 신앙**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는 주위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은혜로우신 역사와, 전도하고 기도하여주는 전도자의 수고와, 아울러 말씀의 매개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전도자의 세 요소는 구령사역에 있어 모두 필수적입니다. 성령은 신앙 생육의 주체가 되시며 말씀은 매개적 씨앗이 되고 전도자는 인격적 매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뿌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개종자의 신앙적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사람의 권유와 설득과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생명에 이르게하는 결정적 권능은 사람의 지혜와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후 52-53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중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의 자기 사역을 반성해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보다는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술 등의 인간적인 지혜에 더 치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와 설교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논리성이나 지식의 정도, 문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2절), 그의 방법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이었습니다(4절).

\* \* 본문 5절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비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교회 봉사와 사역을 철저히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축적된 지혜와 말의 아름다운 것을 배제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야 할까요?

기도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지 점검케 하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강한 사명감을 주시고 양우리들을 바로 돌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2 : 13)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삼위 중 성령은 우리에게 매우 신비스럽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인격적 신성이십니다. 성부는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자는 그 우편에 계시나 성령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주와 목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감화, 감동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깨우치시며 교훈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같은 지도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든 거듭난 신자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신앙의 무슨 공로나 경륜으로 오래된 신자만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출발 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성령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함은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과 신령한 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의 영과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12절). 육에 속한 자와(14절) 신령한 자(15절)의 구별도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신자 개인과 교회에서 온전한 공경을 받으실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 \* 성령은 지식적으로 토론되기보다 체험되어야 할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굳건하고 치우침이 없는 말씀의 분변과 더불어 깊고 신비한 성령의 바른 체험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합니다.

기도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깊고 강한 임재와 교통을 경험케 하옵소서. 독일이 통일되었듯이 남북한이 하루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3: 3)

**젖을 먹는 신자들** 바울 사도는 교회 내외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곧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2:14)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모든 가치를 육체적, 물질적 기준에서 평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3:1)라는 헬라어 '사르키노스'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육적인'이라는 뜻 뿐 아니라 '약하다'라는 의미도 아울러 갖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로 지칭되는데, 그들은 육의 뜻을 좇아 고집하며 하나님의 보다 깊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들의 특징은 분쟁하는 데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성숙한 신자들입니다(2:15). 육에 속한 불신자들도 안타깝지만 육신에 속하며 미성숙한 신앙에 머무는 신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바울의 탄식은(3절) 신앙의 경륜으로 보아 장성했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일삼고 있음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교회의 열매 중 하나는 편당을 짓는 것인데 그 원인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어린 신자들은 남에 대하여는 시기하며 자신을 변호하려다 분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됨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를 잘못 따르므로 편당을 짓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성을 앞세워 우리의 허물과 영적 미성숙을 합리화해서는 아니됩니다.

\* \* 바울은 복음을 심은 자기 자신과 물을 준 아볼로스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7절). 오늘 바울 사도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스스로 더욱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성숙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 열매를 모두 내어버리고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권사님들의 기도가 열매맺게 하시고 구역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3 : 16)

**하나님의 성전** 본문은 흔히 신자 개인의 신덕에 관한 교훈으로 인용되지만 교회론적 언급이 주된 논지입니다. 6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심은 이로 자칭한 바울은 10절에서 그 터를 닦는 사람으로 자신을 밝힙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였습니다(10절).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헌신적인 지혜로 터뒀어지진 기초 위에 다른 터를 닦아 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아니되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이 뿐 아니라 세우는 자가 무엇으로 계속 세워 나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우는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사도적 고백과 종교개혁적 신조의 전통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주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지 늘 자성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재료는 교회의 참 생명을 이루는 영적 자질들의 순서를 존귀한 것부터 열거하였습니다. 같이 주의 일을 하여도 각각 금과 짚으로 교회의 내적 자질을 이루어 나가면 공력을 밝히는 날 교회의 일꾼들이 쌓는 자질의 내용에 따라 받는 상벌의 차이는 지대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약화시키는 한 요인은 하나님의 성전된 신자 개인의 성결문제입니다. 개인의 성결부족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더럽힙니다. 나아가 세상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적인 교만이야말로 교회의 분열과 진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인 금이나 짚은 교회의 내실화를 교훈합니다. 교인의 수나 외형보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특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한 교회야말로 불타지않을 공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의 한국교회들이 불타지 않을 공력으로 세워지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날마다 부흥하여 청년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4 : 5)

**겸손**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노예를 의미하는 말로서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주인되시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본 받지 않고, 아볼로파를 만들며 사도 바울을 판단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그다지 관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하찮은 것이며 믿을만한 것이 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에게만 속하였으므로 우리의 믿음, 생각, 행위등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명백히 공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히 행하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하고 부유한 상태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왕이나 된 듯이 행동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가장 비천한 상태에 두셨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수치를 열거하면서 왕노릇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기들을 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 \* 함부로 판단하며 스스로 다 된줄로 알고 교만히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겸손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4 : 16)

**본이 되는 삶**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한 뒤에 권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그들의 유익을 위해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당당히 말하였는데 그의 인격과 믿음과 사역이 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본이 될만한 점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르침과 행함을 생각나게함과 동시에 그들을 바로 잡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았다는 말 그대로 그들의 양육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본이 될만한 점이 있습니까? 믿음을 먼저 가진 자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난 후에도 고린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영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따라 바울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21) 회개치 않고 계속 교만함으로 분쟁을 일삼으면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며 회개하여 겸손함으로 사랑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 \* \* 바울의 권면에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10 (토)음행에 대한 책망

찬송219 성경, 고전5 : 1-13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5 : 13)

**누룩의 제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음행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종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성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를 고린도 교회가 제명시키지 않고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교만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정작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의인으로 자처하여도 이 한가지 일만 생각하면 낮을 들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같은 죄를 엄히 꾸짖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이미 음행한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5).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큰 죄를 범하는 자를 출교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고 범죄한 자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욕을 파멸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영까지 파멸의 길로 인도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를 인책하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성적부도덕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이런 죄가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유월적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누룩없는 떡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 \* 나와 우리 가정은 성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고 있는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론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6 : 6)

**믿는 형제간의 사랑**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서로 송사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나아가 송사를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같은 소송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재판관들과 성도들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역설합니다. 믿지 않는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며 더군다나 성도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왕노릇 하며 이 세상과 범죄한 천사들을 다스리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권리와 자격을 가진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지 못하여 불신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교회의 수치이며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로 더불어 소송할 일이 있으면 불신자에게 나아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 된 지체로서 소송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 자체에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다고 지적합니다(6). 성도로서의 취할 태도는 불의를 당하고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속을 지언정 속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형제를 소송하기 보다는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 \*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의 지체로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속고 불의를 당하면서도 사랑을 지킬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믿는 형제들 간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믿음과 사랑으로 화합하여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너희 몸은…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6 : 19)

**성령의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가하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 일을 행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고려하여 거리낌이 있다면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 말씀 밑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 이것이 유익하고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한없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실상은 죄의 세력에 이끌리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던 음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와 더불어 음행할 수가 없습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므로 창녀의 육체와 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자신의 몸 밖에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인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7 : 2)

**바른 결혼관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독신 생활이 귀하기는 하나 잘못하면 음행의 위험성에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독신 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죄에 빠지기 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면하기 위하여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정상적인 성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관계를 서로 거절하지 말며 금욕할 수 있는 조건은 서로의 승낙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할 목적을 위해서만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성적 절제 능력이 약화되어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5).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권리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에 대하여 권면합니다(8, 9).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한 경우에는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다시 화합하라고 합니다(11). 부부중 한 쪽이 믿는 경우에는 불신자 쪽이 함께 살기 원하면 그대로 살고, 만일 그 쪽에서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 배우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결혼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집 속히 완공하여 학생의 봉사를 하게 하옵소서.

## 14 (수) 처녀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찬송424 성경, 고전7 : 25-40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이라」(7 : 35)

**주를 섬김** 바울은 처녀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시집가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임박한 환란이란 바울 당시나 주님의 재림 때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고 몰두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혼을 포함해서 세상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29-31).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혼했다고 반드시 문제가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한 자는 아무래도 세상일에 마음이 나누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독신자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혼자 지내는 것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딸을 가진 부모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딸이 혼기가 찼고 독신생활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결혼하게 할 것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딸자신이나 부모가 평생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 \* 결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결혼이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중에 있습니까?

기도 내 모든 생활 영역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총현 복지마을을 속히 이루셔서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8 : 13)

**교만** 바울은 여기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기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형제 사랑을 생각지 않고 교만히 행하였던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겸손하며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교만의 죄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고 선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바울은 4절부터 우상제물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지식을 모두가 다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 중에는 진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우상과 접촉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형제를 생각지 않고 사랑없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의 지식과 자유함으로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며 멸망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형제를 범죄케 하거나, 실족케 하지는 않을 까요? 연약한 형제를 위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으로 행하여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충현 세계선교원을 허락하시어서 세계를 향한 향도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9 : 12)

**권리포기**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정당한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앞으로도 절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삶의 동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거저 주어야 하며, 생활비를 받으며 복음을 전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며, 이를 거절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자체가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만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돈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닫히고 전도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 \* 바울과 같은 청빈한 정신과 생활로 오늘을 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됩시다.

「내 몸을 처서 복종케 함은」(9 : 27)

**훈련**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고대 헬라의 4대 경기 중의 하나인 '이스무스 지협'대회가 3 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인들은 운동 선수들이 엄격하게 절제하며 식사, 잠, 오락등 그들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구체적인 생활을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24, 26절). 그러나 운동 선수들이 이런 극기와 생활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시들어 버릴 면류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진 훈련을 쌓고 진지하게 대비한다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바울은 성도다운 삶의 행동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절제(25절)와 방향 확인(26절)과 자기 부정(27절)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피나는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분투하는 바울은 완성될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날에 하나님이 안겨주실 확실한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며 바짝 깨어 자신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처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복종시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영혼을 처 복종시킴으로써 죄악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영적인 진보와 열매와 성숙을 향해 달음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 \* 부단한 자기 훈련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 예비된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절제와 자기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3 : 15)

**참된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본래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편안한 환경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신 26:3). 그러므로 성도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생활에 구체적인 열매나 소출이 없다 할찌라도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감사절이나 복미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안일과 풍요 속에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들 청교도들이 가진 생활의 좌우명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되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과 성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쁨과 슬픔으로 뒤엉킨 지난 한 해의 모든 삶을 바르게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참된 감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안에 풍성할 때, 힘있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같은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 \* 감사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를 생활화하는 감사절이 됩시다.

기도 금년에도 풍성한 약속의 성취와 평강으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에 기아에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10 : 6)

**경고** 전장에서 자기 훈련의 필요성을 가르친 바울은 이제 태만과 방종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가지 특권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탐심을 가졌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음행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죄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육신적인 욕심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즐길수록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시초부터 억제해야 합니다. 이 경고를 제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이같은 육신적 탐욕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늘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는 내부의 욕구와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출32장, 엡5:5). 또한 우상 숭배는 인간의 가장 저급한 정욕이 고삐가 풀려 숭배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과 음란한 행동은 우상 숭배에 당연히 따르는 결과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하고, 지도자와 하나님께 원망하던 일은 엄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경고(12절)와 한 가지 약속(13절)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경고와 약속을 통해, 우리의 신앙적인 태만과 방종에서 벗어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 \*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실패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값진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신앙의 채찍을 삼읍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10 : 23)

**성도의 자유** 고린도의 어떤 교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표어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그들의 생활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도의 자유는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는 원리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자신과 같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23, 24, 32, 33절). 둘째, 자신의 자유함이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29, 30절, 롬14:16). 셋째, 하나님의 영광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과와 모든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특별한 규칙이 없는 곳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는 우리의 기질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우를 모본으로 제시합니다(33절). 바울 자신이 자유를 원리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본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11:1절).

- \* \*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함을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기도 자신을 위해서는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실패한 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에 굳건히 붙어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11:16)

**규례** 본장은 교회에서 집회시에 지켜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2-16절)와 성찬(17-34절)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기도할 때, 남녀간에 수건을 썼고(민5:11-31), 헬라인은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란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고린도에서는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은 채 짧은 머리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녀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는 표시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갈등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교회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교회에서의 지위를 놓고 남자들과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자들로 하여금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자기 보다 높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뜻합니다. 결국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남녀간의 바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문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먹기를 탐함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성도 개개인이 절제할 때 교회의 질서가 아름답게 지켜질 것입니다.

\* \* 먹고 마시는 일,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교회에 바른 질서를 세우고 올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 질서를 지키게 하옵소서. 12월에 부임하실 교역자님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12 : 11)

**하나님의 선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무질서와 분열을 방지하고 그릇된 영적 호기심을 바로 잡기 위해 '신령한 일'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사의 출처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양할찌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은사는 일치성(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다양함은 분열과 혼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룸으로 보다 풍부한 일치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은사는 본문에 나타난 9가지 외에도 고전12:28-30절과 롬12:6-8, 그리고 엡4:11에 보면 다양한 은사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섬김의 도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되거나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은사는 그 소중한 가치를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봉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 \*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하여 값지게 사용하십시오.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12 : 12)

**조화와 일치** 바울은 은사의 다양함과 일치성을 이해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하나인 것같이,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나 하나이며, 많은 은사와 직임들은 교회의 하나됨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비천한 지체도 몸의 한 부분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어떤 지위나 특별한 은사가 없을찌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에 값진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지체에는 기능상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상호보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은사와 지체가 있음으로써 교회는 균형있고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전혀 불필요한 지체란 없습니다. 몸의 각 지체의 위치와 기능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어졌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각 지체가 배열되고 각양 다른 은사가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일에든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돌아보며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생활해야지 결코 자랑하거나 혹은 경멸하거나 비난, 분쟁, 시기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들은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하나된 몸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됨이 없는 은사들은 무기력합니다.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쓰여져야 하며, 사랑은 여러 은사를 연결짓는 끈과 같습니다.

\* \*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의 끈으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모범적인 신앙공동체가 됩시다.

기도 교회의 모든 부서가 지체의식을 갖고 전체의 몸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세미나를 수료한 주의 종들을 능력있게 사용하옵소서.

## 24 (토)가장 좋은 은사

찬송404 성경, 고전 13 : 1-13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13 : 8)

**사랑의 위대성** 바울이 12장 끝에서 말하고자 했던 ‘더욱 큰 은사요 제일 좋은 길’은 13장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아름다움과 힘으로써 사랑의 위대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가지 면으로 설명하는데 첫째(1-3절)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아름다운 방언과 예언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 심지어 순교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아니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은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둘째(4-7절)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이웃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의 구체적인 표현이요, 삶 자체입니다. 즉 사랑은 율법(행위)의 완성이며 최고의 실천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정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없이 아낌없이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셋째(8-13절)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그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사랑은 영원하며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 안에서만이 온전해 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 \*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14 : 1)

**더 소중한 은사** 은사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 지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종 은사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은사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은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은사의 목적과 한계를 바로 알고 선용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인정함으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보다 더 나은 은사가 많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히 나아가는 것으로 듣는 자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에게만 덕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을 이해케하여 권면과 위로를 주므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만마디의 방언 보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다섯 마디 말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며 남을 가르치는 것은 예언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소중한 은사를 방언의 은사 보다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은밀히 사용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신 목적과 역할을 바로 알아 사용할 때 가치있습니다.

\* \* 방언을 무시해서도 안되며 지나치게 남용해서도 안됩니다. 방언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뜻을 겸손히 순종하고 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 다섯마디 깨달은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기성교인들이 귀족적인 의식과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14 : 40)

**질서의 하나님**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공중 예배시 까지 방언을 함으로써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해 질서 있게 사용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귀하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함만 못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언 사용에 절제가 필요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로 인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여성도들의 섬김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은사를 받은 자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당시는 교사와 장로가, 남자들이었음)의 권위를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의 지도를 벗어나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자들이 오늘이나 당시에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이 결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의 권면이라고 확증합니다 (37절).

- \* \* 질서 없는 은사 사용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 일수록 교회에 세우신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15: 8)

**복음의 증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것을 다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음 세가지로 기술합니다. 첫째, 부활 사건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실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3절).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 보다 앞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확인시켜 주는 설명입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과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보다 주관적인 확신이 더 힘있게 받아들여 집니다. 예수와 교회에 대해 꾀박자요 훼방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느 누구 보다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 \* 바울은 다마스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그의 생의 목표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28 (수)죽은자의 부활

찬송532 성경, 고전15 : 12-33

「그리스도께서…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15 : 20)

**부활의 첫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여 그 영향을 확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고 부동하게 반증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되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서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들과 모든 증인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복음을 한낱 허구요 거짓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모든 유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 영생의 축복과 소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죽은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확증되었습니다.

\*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15 : 49)

**영광의 부활 승리**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몸은 죽은 후 완전히 썩어져 형체 조차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 있어서 굉장한 의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해답을 평범한 자연의 원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씨와 식물, 도토리나 도토리 나무가 다르듯이 부활의 몸은 죽은 몸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죽은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짜맞추어지는 식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위해 하늘나라에 맞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몸이 땅에 묻혀지는 것은 장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부활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씨가 땅 속에서 썩어져야 다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 육신은 비록 썩어져 옛 형태는 흔적 조차 없으나 부활의 날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때는 사망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 \*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썩어나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모두 영광의 부활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기도 주님 당신의 재림을 더욱 열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부에서 자라는 지체부자유 어린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16 : 22)

**종말론적 신앙**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묘사한 후 16장에 와서 갑자기 현실의 문제로 되돌아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 회심했는지의 증거는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 가운데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 현세적 재물에 대하여 올바른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어리석은 욕심을 떨치고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와 구제에 힘써 사용할 것을 교훈합니다. 실제로 그는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2절). 둘째는 자신의 능력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은 십일조를 말씀하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 보다 결코 적은 비율의 헌금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는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넷째는 사랑과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14절).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전도자 디모데와 스테바나를 부탁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 자들과 오는 자들을 잘 돌봐줘야 함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바울의 인사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22절 하반부는 원문에 “마라나타(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바울의 변함없는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 \* 주님의 재림이 날마다 가까워 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깨어 믿음에 굳게서서 다시오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일일 선교회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많은 장애인들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 가정예배 안내

##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